

##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21장 다 찬양하여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리워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 1** "네가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2** 그 코를 줄로 썰 수 있느냐? 그 턱을 갈고리로 썰 수 있느냐? **3** 그것이 네게 빌고 또 빌겠느냐? 네게 점잖은 말로 말하겠느냐? **4**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것을 평생 노예로 삼겠느냐? **5** 네가 새 같은 애완동물로 삼겠느냐? 네 딸들을 위해 그것을 묶어 두겠느냐? **6** 어부들이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겠느냐? 상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나누겠느냐? **7** 네가 그 가죽을 쇠꼬챙이로 찌를 수 있느냐? 그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느냐? **8** 네가 그것에 손을 대 보아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기억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9** 보아라. 그것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으니 그것을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느냐? **10** 그것을 감히 자극할 만큼 용맹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11** 나를 막아서서 내가 갇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 · 리워야단의 무시무시함

- 12** 그 사지와 그 힘과 그 튼튼한 뼈대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13** 누가 그 가죽을 벗길 수 있느냐? 누가 두 겹 비늘 사이를 뚫겠느냐? **14** 누가 감히 그 얼굴 문을 열겠느냐? 그 둘러 난 이빨이 무시무시하니 말이다. **15** 그 비늘은 단단히 봉인된 듯 붙어 그 자랑이 된다. **16** 비늘이 서로 꽉 붙어 있어서 바람도 통하지 않는다. **17** 그것들이 서로 단단히 조여 있고 함께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 **18** 그가 재채기를 하면 빛이 번쩍이고 그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다. **19** 그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며 **20** 그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펄펄 끓는 냄비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다. **21** 그 숨은 솟에 불을 불이고 그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22** 그 목에는 힘이 있으니 그 앞에서는 경악하게 된다. **23** 그 살갓이 서로 연결되고 견고해 움직이지 않는다. **24** 그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며 맷돌의 아래쪽같이 단단하다. **25**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부수어 대면 기가 꺾인다. **26** 칼이 닿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27** 그것은 철을 짚처럼 다루고 청동을 썩은 나무처럼 취급한다. **28** 화살을 쏘아도 도망치지 않으며 무릿매 돌도 겨와 같이 날려 버린다. **29** 몽둥이도 지푸라기쯤으로 여기고 창을 던지는 것을 보고도 피식 웃는다. **30** 그 뱃가죽은 들쭉날쭉한 질그릇 조각 같고 진흙 위에 타작 기계처럼 자국을 내는구나. **31** 그것은 깊은 물을 솥 끓이듯 하고 바다를 기름 솥 끓이듯 한다. **32** 또 가고 난 자취에 빛나는 길을 남기니 사람이 보기에 깊은 물이 백발 같다고 여긴다. **33** 땅 위에 그 같은 것이 없으니 그는 두려울 것 없이 지어졌다. **34** 모든 교만한 것을 다 쳐다볼 수 있으니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 3 묵상하기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 중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워야단을 길들이기는커녕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강력한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의로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질서와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길고 긴 욕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욕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내려놓은 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4 적용하기

하나님의 답변을 묵상할수록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능대로만 사는 동물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분과 기꺼이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했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은 일이 있나요? 그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②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피조물 중 하나이지만, 모든 피조물 중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손길 안에 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21장 다 찬양하여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 1 "네가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느냐?
- 2 그 코를 줄로 켈 수 있느냐? 그 턱을 갈고리로 켈 수 있느냐?
- 3 그것이 네게 빌고 또 빌겠느냐? 네게 점잖은 말로 말하겠느냐?
- 4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네가 그것을 평생 노예로 삼겠느냐?
- 5 네가 새 같은 애완동물로 삼겠느냐? 네 딸들을 위해 그것을 묶어 두겠느냐?
- 6 어부들이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겠느냐? 상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나누겠느냐?
- 7 네가 그 가죽을 쇠꼬챙이로 찌를 수 있느냐? 그 머리를 작살로 찌를 수 있느냐?
- 8 네가 그것에 손을 대 보아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기억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 9 보아라. 그것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어림도 없으니 그것을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느냐?
- 10 그것을 감히 자극할 만큼 용맹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 11 나를 막아서서 내가 갇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 • 궁금 사전

\*리워야단: 사람들이 바다에 산다고 생각하던 거대한 동물

\*작살: 물고기를 찢러 잡는 기구

#### • 말씀 씨앗

하나님은 또 다른 크고 강한 동물인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물로 사람이 만든 어떤 무기나 도구로도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애완동물처럼 대하며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3 말씀 새싹 - 하나님은 리워야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네가 새 같은 ○○○□□○○○○로 삼겠느냐? (5절)

그것을 감히 자극할 만큼 ○□하○○○○사르○○은 없다. (10절)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나○○거○○이다. (11절)



5 말씀 열매 -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부분을 색칠해 보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